

## 윤석열 대통령,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 연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0일 오후, 유엔사 주요직위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사의 헌신에 대해 공감하고,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유엔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유엔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환영의 말을 전하며, "그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유엔사는 73년 전 불법 기습 남침

한 북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 제84호에 따라 창설된 후 종전통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우방국의 전력을 통합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면서, "이처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

도의 안보리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하여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하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

한 라케머라 유엔군사령관의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케머라 유엔군사령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유엔사 회원국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동맹들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딱 하나, 동맹들 없이 싸우는 것이다"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어서, 유엔사 참여 희망국이 많은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라케머라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자유를 위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이 승인한 정당한 선거를 통해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유엔사는 6·25전쟁 당시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라 탄생했으며 이를 볼 때 대한민국과 유엔은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오늘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유엔사 측에서는 폴 라케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앤드류 해리스(Andrew

Harrison) 유엔사부사령관(영국군 중장), 윌러드 벌러슨 주한 美 8군사령관, 최인수(韓. 육군 소장) 군정위 수석대표, 존 캐리(John Carey) 기참차장(호주군 준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 원전산업 역량강화 및 육성 '앞장'

제1차 원전산업 육성 협의회 개최, 원전산업 육성 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유

경북도는 9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도내 원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육성·기술개발·인재양성 및 국책사업 유치 등 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원전산업 육성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지빌리티, 포스코홀딩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포스텍, 동국대학교 등 산·학·연 기관 전문가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원자력 국비 확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동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아이디어 공유 및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 등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원전 관련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기업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전산업 기술 및 사업화, 정책 동향 등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정부정책에 부응할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은 전국 25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다수의 원전기업은 수도권과 경남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6일 SMR 및 원자력소수국가산단이 확정된 만큼 향후 도내 원전 관련 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장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강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도내 원전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고, "원전산업 육성 협의회를 통해 도내 원전산업 육성 정책 발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국체전 준비상황 촘촘히 살피

분야별 공무원 책임제·현장 중심 사전점검 등 세세한 대책 논의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분야별 공무원 책임제 운영, 현장 중심 사전 점검 등 대책을 세세하게 논의했다.

보고회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소영호 목포부시장,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 집행부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핵심 현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양

대체전에 방문하는 4만여 선수단에겐 분야별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경기장·공중화장실 위생관리 대책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폐회식 안전대책 ▲선수단 수송 및 교통대책 ▲분야별 담당 공무원 책임제 운영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모든 방문객이 따뜻한 전남의 정을 담아가

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최우선으로 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막바지 손질맞이 준비에 온힘을 쏟자"고 덧붙였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이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에는 코로나 일상회복 등의 상황을 감안해 약 4만 명의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많은 관람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수해피해지역 지원활동 솔선

## 산사태 피해현장 점검, 생필품 전달 등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 펼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영주, 문경지역을 방문하여 7월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문경시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피해현황을 들은 후 이재민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일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농가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예천, 영주, 문경 등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에는 큰 피해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토사로 인해 발생한 잡목과 철골을 제거하는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의 모습은? 아이들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 부산시의회 연구단체 '부산역' 14일 아동정책대회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부산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에서 8월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아이들과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하는 '아동이 행복한 부산을 위한 '아동 정책 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부산시의회 박종목 부의장,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지특별위원회 강철호 위원장,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시의원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낸다.

이번 아동 정책 대회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아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한다.

행사의 취지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만드는 부산의 내일을 부산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토론과 제안, 민주적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학습과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부산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행복한 미래의 부산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소통캐릭터인 "부기"와 "부름이"도 등장하여 행사장의 열기를 더하며 아이들과 함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본 행사인 아동정책대회에서는 교육·안전·문화·복지분야를 비롯해서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아이들이 관심있는 영역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부산역' 연구단체 시의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제별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면서 시작된다. 이어 그룹별로 시의원과 아이들이 한팀이 되어 함께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분야별 제안사항은 결의문을 통해 부산시와 시의회에 전달된다.

김형철 시의원(연제2)은 “아동의 정책제안과 의견이 현장과 정책에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피드백과 컨설팅의 기회를 의회가 제공하길 실무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아이들의 참여 효능감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대표인 성장용 시의원(사하3)은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부산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의회가 자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행복한 부산은 어떤 모습일지,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 제안될지 매우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역' 연구모임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부산시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따른 부산시 주요 정책 현안 대응과 부산시 재정 및 주요 경제 정책의 효과성 점검과 평가를 통해 부산시 주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한다.

김희태/기자

# 전북도의회, 국회 찾아 국립의전원 법안 연내 통과 호소

##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위 이정린, 오현숙 도의원 국회 방문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를 방문해 국립의전원 법안에 대한 연내 통과 및 유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전라북도인 모두가

연원하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당위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기획했다.

공공의대 특위는 먼저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전북 출신 김성주 국회의원을 찾아 민주당 차원에서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우선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길 요청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며 최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강은미 국회의원을 만나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유치 호소했다.

이날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뜨겁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무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법안

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은 “의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에 대한 우선 설립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과 12월에 남원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고자 국회를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소속 위원인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재 위원, 김경수 위원, 김만기 위원, 이병철 위원, 황영석 위원, 나인권 위원, 오은미 위원, 김명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남출/기자

#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9건 입법예고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9건(제정 6건, 일부개정 10건, 전부개정 2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4명), △성남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2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4명), △성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순 의원 등 11명), △성

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1명),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5명),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2명), △성남시 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1명),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명),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2명),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1명), △성남시 장시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명),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명),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연 의원 등 11명)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월 17일(목)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국토부의 '청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청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경기도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발단되었다.

정담회는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김봉집 주무관 등 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2) 등 평소 의정활동에 '청년'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청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년 연령 범위에 대

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관련 15건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은 15세에서 39세로 큰 격차를 나타낸다. 실제 2023년도 기준 경기도 16개 시·국·원의 경기도 청년 사업 49개를 살펴보면, 정책 대상자는 15세에서 39세까지 또는 대학생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현재 사업별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점검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하였다.

김범상/기자

## 이택수 의원, 도민을 위한 에너지 기회소득 확대되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을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

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받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공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판매로 수익이 창출되어 20여년간 가구당 매월 약 14만~32만원 상당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10억원, 시·군 1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선정시 설비 단가의 80%(도비 30%, 시·군비 50%)는 지방정부가, 20%는 민간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마을을 조성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600만원의 설비단가 가운데 가구당 약 120만원 정

도 부담하고 8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사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체계 개발, 차년도 기회소득 마을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위해 올해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택수 의원과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에너지 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산수 사무처장 등 4명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범상/기자



### 잼버리 참가자 만남 김동연 "인종·국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함께 행복한 경기도 만들겠다"

#### 경기도, 10일 도담소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30명 초청

경기도가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퇴영한 참가자 일부를 도담소로 초청해 악기 연주 및 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담소에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만나 "오늘 발달장애인 공연단의 공연을 보여드리는데,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의 하나"라며 "경기도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피부 색깔, 인종,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경기도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도담소에는 잼버리 참가자 3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안성시 농협중앙회 교육원에 체류 중이다.

도는 이들이 경기도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술 공연과 발달장애인 하늘소리 문화예술단 합창, 라온브라스앙상블의 금관 5중주 공연을 마련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공연을 보며 참가 대원 가운데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시하는 등 훈훈하고 몽글몽글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7일 잼버리 참가자들이 새만금 영지를

떠나고 밝힌 후 "잼버리가 국제대회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시군과 협력해 도내 공공시설, 대학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 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를 추진했으며, 체류 기간 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실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보에도 나섰다.

특히 지난 9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잼버리 대원들이 입소한 경기도소방학교와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기아트센터를 찾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시군별로 10일 안산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시립합창단·국악단과 청년예술인 등의 공연,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맨스 경연과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1일에는 경기도미술관 견학, 케이팝(K-POP)댄스 교실 등이 예정됐다.

남양주시도 10일 봉선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11일 우석헌자연사박물관 관람과 정약용 펀드라운드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 등을 진행한다.

김범상/기자

###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8월 10일(목) 15시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갈현초·능안초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 제2회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 배영환 행정과장, 김대현 사무관, 김명순 교육과장, 심학중학교 정은경 교장, 임진초등학교 육병구 교장,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등 10인이 모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이며 과대·과밀 학급해결 하려는 취지로 파주시 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영하기 위해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운영을 위한 목적 중 하나는 과밀 학급 해결이므로 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재정지원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내년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고 연간 발생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혜택 감소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적응 학생 등의 전입을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고, 무분별한 전입이 우려되거나 전입생을 선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전입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간 소통하여 관내 2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앞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지원받는 학교만 가지는 특별한 교육과정 설

계와 편의시설 증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교육기관과 3번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과밀학급 해결과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1일(금)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사)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결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들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

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될 것 기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밖에 경기도의회는 차지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체도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범상/기자



### 홍원길 의원, 소공인과뿌리산업활성화로 지역불균형해소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8월 9일(수) 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실에서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의 현황 점검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뿌리산업과 소공인 담당부서가 참석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소공인기업의 기반 조성고 성장에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되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매니저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비

하여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열악한 형편이며, 인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뿌리산업분야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홍원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하여 개정된 '경기도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인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

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소공인과 뿌리산업의 침체로 인해 발생할 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침체일조에 놓여있는 소공인과 뿌리산업에 대하여 단거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인적자원의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공인기업과 뿌리산

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업종특화사업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펼친다.

### ‘청년, 수원으로 있다’ 운영,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참가자 모집 청년들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소셜다이닝, 클라이밍 등 프로그램 기획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수원시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친다. 재단은 수원시 청년 교류 활성화 사업 ‘청년, 수원으로 있다’ 운영을 알림과 동시에 참가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수원지역 청년 1인 가구 수요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순 교육이 목적이 아닌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리엔테이션 △소셜다이닝 △문화힐링 △클라이밍 △성경과보고회를 운영하며 각 활동을 통해 청년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원 지역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더욱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상 청년들

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수원시 소재 직장, 학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9세~34세 청년(새빛청년존, 세어하우스‘CON’의 거주자 우대)으로 모집인원은 주제별 클래스당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청년실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태풍 ‘카눈’ 복상 대비 재개발·산책로 현장 점검

### “시설물과 취약지역 선제적 대응…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준비”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가운데 안양시가 10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개발 현장과 산책로 등을 긴급 점검했다.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이날 오전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현장과 내비산교 및 학의천 산책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설물과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최선”이라며 “재해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 인력 및 장비의 현장 투입과 주민 대피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대형 공

사장, 천변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관리 시설 점검 현황과 주요 대처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하천 진입 재난안전선 설치, 둔치주차장 통제, 그늘막 결박, 지하차도 차단 등 태풍 대비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시는 9시 기준 태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비상 2단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우용/기자



#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2023 화성시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8월 25~27일 개최

(재)화성시문화재단은 극단민들레와 함께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민들레연극마을에서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제15회 화성시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농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는 전통, 환경, 평화 등을 주제로 민들레연극마을 공간을 활용한 생태 및 자연 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과 예술인들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 축제이다.

제15회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는 국내·외 연극 14종, 화성예술인공연 4종, 방정환 프로젝트 4종, 아시아문화공감 6종 등 총 28편의 프로그램과 게릴라 공연이 운영된다. 또한 허사시 시모야마(리카리카 페스타) 예술감독, 임란칸(피타라 페스티벌) 예술감독, 송인현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여 화성시 문화예술 발전과 청소년 연극의 방향을 고민하는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며, ‘방정환 프로젝트’를 통해 고승하 등 유명 작곡가와 함께 노래를 통한 치유와 심의 시간을 갖는다. 공연 종료 후 관객과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8월 25일~26일에는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관계자는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를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 등지의 아티스트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화성시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도 축제의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3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공연 관람은 네이버예약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환영사

### 이동환 고양시장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활기 불어넣을 것”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1일 열린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환영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진행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미래 전략 산업이다. 오늘 박람회가 침체된 대한민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내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남겼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매년 천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문화관광 우수 도시”라고 고양시를 소개하며 “행주산성과 조선왕릉인 서오릉과 서삼릉 같은 문화유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와 아

람누리, 라페스타 같은 문화시설이 공존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우수한 관광 기반시설을 홍보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25년 완공될 예정인 킨텍스 제3전시장을 언급하며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전세계 20위권 규모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해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고양시에 모이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고양시 홍보관을 열고 고양시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즉석사진 촬영관(인생네트)과 특산물 홍보, 관광 명소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 안산시,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이윤보다 사회 가치 추구

안산시는 지난 9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가(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강의 시연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회적경제 활동가(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교육 청소년 교육법 ▲전문강사로서의 자세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의 실제 등이 담겼다.

이들은 청소년에게 낯선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내

달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학교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활동 강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산시 대표 사회적경제활동가로서, 이윤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청소년 아카데미’ 신청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관내 중·고등학교 60학급(15인 이상 구성된 동아리 가능)을 선착순 모집한다. 최정부/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세계 펜싱선수권대회 “값진 은메달” 하한솔 격려

###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위상 높여줘 감사”

신상진 성남시장은 8월 11일 ‘2023 세계 펜싱선수권대회’(7.22~30. 이탈리아 밀라노)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하한솔 선수(29.성남시청)를 만나 격려했다.

신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차담에서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담 자리에 함께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펜싱팀 이정운 감독, 김형열 코치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열과 성의를 다했기에 ‘값진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남아있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도 선전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꽃다발을 전달

했다. ‘2023 세계 펜싱선수권대회’에는 하한솔(성남시청)을 비롯한 오상욱(대전시청), 구분길(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 등 4명이 대한민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이들은 7월 28일(현지 시각) 치러진 준결승전에서 미국을 45대 27 스코어로 제압해 대승했다.

하한솔 선수는 2016년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펜싱팀에 입단해 2018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월드컵 펜싱 선수권대회, 2019 세계펜싱선수권대회, 2023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월드컵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범상/기자





# 경북도, 태풍 '카눈' 피해사과 전량 긴급 수매키로...

### 이철우 도지사 특별 지시, 태풍 피해과 先수매 後정산으로 농가 신속 지원 음료 가공용으로 매입, 농가 경영 조기 안정화 기여



경북도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에 대해 전량 긴급 수매하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도내 사과 피해 면적은 11일 현재 기준 375ha(낙과 352, 침수 23)로 집계됐다. 긴급 수매 물량은 약 4,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과를 즉시 수매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수매 기관인 대구경북농협과 긴급 협의해 先수매, 後정산으로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수매를 희망하는 모든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kg 한 상자 당 1만원으로 수매한다.

농가에서 떨어진 사과를 바구니에 모아둔 후 시군 과수담당부서나 대구경북농협 시군 지점 또는 경제사업장에 신청하면, 대구경북농협에서

는 차량으로 농가를 순회 하면서 모아둔 낙과를 수거해 가공공장으로 이송하게 된다. 수매된 사과는 대구경북농협음료가공공장에서 가공품으로 재탄생되어 시중에 판매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 수확을 앞두고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240톤을 긴급 수매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했으며 향후 폭염, 태풍 등 추가 피해 시 국비까지 확보해 농가에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온,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기상재해도 도내 농업인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북은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이고, 최고의 사과 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굳건하게 주도하고 있다"라며, "그 주역들이 이번 태풍 피해로 상실감과 허탈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53사단,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개최

### 지난 10일, 시청 20층 회의실에서 「부산시-제53보병사단 상생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53사단 이전 등 상호 간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軍·부산시 소통창구 역할 기대



부산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부산시와 53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 20층 회의실에서 「부산시-제53보병사단 상생협력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53사단 이전', '군 주거환경 개선' 등 군·관(軍·官)의

다양한 도시 현안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부산시는 지난 1월 해운대 53사단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을 착수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전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이다.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하고 지난 1월, 「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본격 착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해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사용부대인 53사단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육군 아로오티시(ROTC) 모집 미달사태 등 군 인력난이 심각함에 따라 군 간부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군)의 관심이 높다. 군인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53사단에서는 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군사시설 건축이 제한되면서 사업이 중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는 이러한 상호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 시와 53사단이 손을 잡은 것이다. 시와 53사단은 여러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요구로 빚어진 갈등이나 군사시설의 작전상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비효율적인 행태는 없어야 한다는 데 함께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한 도시계획 부

야의 다양한 협력 사항을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53사단이 이전되면, 현(現) 군부대 이전 적지에는 국가적 역점사업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국가 혁신성장거점인 첨단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전 적지에 첨단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인구감소, 나아가 청년층의 지역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53사단 이전사업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군과 시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53사단과 상생협력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 전국 最高 고추의 고장 영양군, 2023년산 홍고추 수매 실시

### 오도창 영양군수,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고추 수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

전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전국 최고 고추의 고장 영양군이 지난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영양고추유통공사를 통해 2023년산 홍고추 수매를 실시한다.

올해 수매 계획량은 출하 약정을 체결한 1,119호 농가를 대상으로 4,743톤이며, 홍고추 수매사업은 산지 가격 지지 효과는 물론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 효과를 가져와 영양군 고추 재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추 수매가격은 서울·대구 등 공영도매시장과 인근 서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의 견고추·홍고추 경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영양고추유통공사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올해 첫 수매 단가는 특등 3,000원/kg, 일등 2,900원/kg으로 수매기간 동안 주 1회 가격을 조정하고 시중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수시 조정하여 시장시세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고추 수매 계약 농가에는 수매실적에 따라 장려금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며 장려금은 수매율 60% 이상인 농가에 300원/kg, 유기질 비료는 수매율 50% 이상인 농가에 100포/ha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고추 수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고추유통공사를 통해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산 홍고추 수매를 실시한다.

올해 수매 계획량은 출하 약정을 체결한 1,119호 농가를 대상으로 4,743톤이며, 홍고추 수매사업은 산지 가격 지지 효과는 물론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 절감과 인력난 해소 효과를 가져와 영양군 고추 재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추 수매가격은 서울·대구 등 공영도매시장과 인근 서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의 견고추·홍고추 경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영양고추유통공사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올해 첫 수매 단가는 특등 3,000원/kg, 일등 2,900원/kg으로 수매기간 동안 주 1회 가격을 조정하고 시중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수시 조정하여 시장시세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고추 수매 계약 농가에는 수매실적에 따라 장려금과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며 장려금은 수매율 60% 이상인 농가에 300원/kg, 유기질 비료는 수매율 50% 이상인 농가에 100포/ha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홍고추 수매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202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 개최

### 서울대 과학봉사단, 영덕 고등학생 위해 과학 프로그램 운영

영덕군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영덕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에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과학봉사단과 지역의 고등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여름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의 특강과 함께 과학봉사단이 진행하는 과학실험 및 토론, 레크리에이션, 입시 및 진로에 관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의 과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웠다.

비록 태풍 '카눈'의 복상에 따라 안전을 위해 애초 5일간 계획했던 일정이 3

일로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과학봉사단은 하루 중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 운영해 학생들에게 한 과정이라도 더 알려주고 체험하게 하는 열정을 보여 지역 학생들의 만족을 높였다.

이현숙 자치행정과장은 "뜻하지 않은 기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치르게 됐지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캠프를 운영해주신 서울대 과학봉사단에 깊이 감사린다"며, "앞으로 개최될 캠프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과학 체험의 즐거움과 학업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대구시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매일 셋째 주 목요일을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 성매매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박차

대구광역시는 오는 17일(목), 북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시, 북구청, 경찰서, 소방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와 함께 '민·관·경 성매매 방지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 대구광역시 유관부서, 구·군, 지방경찰청과 교육청, 소방안전

본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북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

부 ▲성매매(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아울러,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힘내, 민들레)에서는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현장상담 및 성매매 피해자 구조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현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으로 성매매 없는 대구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냉장고를 부탁해' 특화사업 추진

청송군은 지난 7일부터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인 '냉장고를 부탁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청송읍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노인 8가구를 선정하여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4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 냉장고 내부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정리하는 등 냉장고 청소를 실시한 후 밀반찬, 요리 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소외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건강 및 안부 확인, 생활실태 점검 등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인 한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보니 힘들어서 냉장고 청소도 못하고, 음식을 꺼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다"며 "나이가 드니 음식 맛도 모르고, 눈도 어두워 음식이 상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 윤경희 군수, "앞으로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하겠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청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태풍 피해 농작물 현장기술지원 나선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침수 등 농작물 피해 사후관리 지도 병해충 적기 방제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후관리 중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난 10일 남해안 상륙 후 한반도를 관통해 도내에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태풍 피해 농작물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침수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현장을 방문, 피해 농작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기술을 지도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병해충 방제와 농작물 생육 회복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물별 사후관리 요령으로 침관수된 논은 물 빼기 후 벼에 물은 흙 양과 물을 제거하고 새 물 걸러대기로 뿌리 활력을 촉진하며, 도열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등 병해충이 우려되는 논에는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콩, 고추와 같은 밭작물은 쓰러진 경우 1~2일 이내에 세워주고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기는 흙을 보완하며, 생육이 불량한 포장은 요소 0.2%액을 잎에 뿌려 주거나 복합비료 등을 시비해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특히, 고추 탄저병 발생이 평년보다 급증하고 있고 병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병에 걸렸거나 상처 입은 열매는 빨리 제거하고 적용약제를 병해충 방제기준에 맞춰 살포해야 한다.

대파(代播)를 할 경우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준수하고 파종 한계기 이전 파종해야 한다.

과수는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낸 후 보호재를 발라주고 2차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제를 살포해준다.

또 쓰러진 나무는 땅이 마르기 전 세워주고 보조 지주로 고정해주며,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수세 회복을 위해

요소(0.3%),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엮면시비해주는 것이 좋다.

축사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축사 소독 및 가축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고 예방접종을 실시해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며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현장기술 지원과 병해충 방제 등 농작물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제공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18시 기준 태풍 카눈에 따른 도내 농작물 피해는 포항, 경주, 영주, 영천, 문경, 청송 등 6개 시군에서 297.5ha로 잠정 집계됐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보건소, 임산부·양육모 마음성장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신청은 14일부터 선착순 15명 접수, 운영은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3회 실시

**경주시보건소**  
**임산부양육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성장 아카데미]**

접수기간 | 2023.8.14(월) 09:00~ 선착순 15명 모집

대상	임산부 및 양육모 15명 ※양육모: 3개월 이하 자녀 양육자
장소	경주시보건소 2층 다목적실
내용	<1회 마음열기> 별칭짓기, 자기소개, 내가보는 내 모습 <2회:자기이해> TCI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3회:자기수용> 마크라메를 활용한 감정전달
모집	전화(☎054-779-8627~9) 또는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3회차 모두 참여 가능한 분

문의 ☎054-779-8627~9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1일, 임산부와 양육모의 심리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음성장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단상담 형식의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엄마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보는 내 모습 ▲성격검사(TCI)를 통한 자기 이해 ▲마크라메(공예물품)를 활용한 감정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북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협업체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산후우울증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 임산부

및 양육모 15명을 대상으로 경주시보건소 다목적실에서 펼쳐진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15명 선착순 모집이며,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모자보건실로 전화(054-779-8627~9)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엄마의 정서와 심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가족전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봉화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영화보며 문화생활 즐겨요~'

여름방학 맞이 '영화 보러 가는 날' 문화체험활동 운영

봉화군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3일과 11일 양일간, 롯데시네마 영주점에서 문화체험활동으로 '영화 보러 가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가족과 아동 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신영화 관람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1회차 참여자들은 '틴에이지 크라켄 루비'를, 2회차 참여자들은 '몬스터 패밀리 2'를 관람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더운 여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오랜만에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관람할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 태풍 '카눈' 피해 현장 방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11일(금),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효령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10일(목) 태풍 '카눈'으로 군위군의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군위군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 식품, 물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대응을 위해 재해지원 목적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필요시 응급복구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이번 지원은 제방 유실로 인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과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에 쓰레기 처리, 장비 임차 등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 지난 12일 자원봉사를 하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태풍 '카눈'으로 군위군이 큰 피해를 입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군위군의 수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 울진군, 철저한 사전 대비로 태풍 피해 최소화



위험지역 주민 사전 대피로 인명 피해 '제로'  
재난취약지역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

손병복 울진군수, "선제적 재난 대비 체계 강화해,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 노력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자 가운데, 울진군은 지난 11일, 선제적 태풍 대비 태세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전하면서, 특히 인명 피해는 '제로'다.

태풍 '카눈'은 지난 10일 한반도를 수직 관통하며 강풍과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다. 울진군도 10일 하루 동안 최고 220mm의 강풍을 동반한 큰 비가 내렸다.

이번 태풍으로 울진군은 일부 지역에 도로 침수로 인한 통제와 제방 침수, 농경지 일부 유실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울진군은 강도 '강'의 태풍 복상에도 불구하고 관내 피해가 크지 않은 데는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한 철저한 재난 대응 체계 운용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군은 태풍 복상 전인 지난 6일부터 군수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태풍 진로와 영향 범위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을 통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8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제로 가동해 업무에 임했다.

특히,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태풍 복상 전에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고, 지역마다 전담 공직자를 배치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울진군의 철저한 선제적 대응이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태풍 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공직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선제적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위기로

인해 점점 강해지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예천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체육교실 운영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체육교실 운영  
"다양한 스포츠체험으로 활기찬 방학을 보내요"

예천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활기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1일과 오는 18일 2회에 걸쳐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컵 쌓기, 피구, 패러슈트, 뽀름 등 다양한 도구를 접하고 신체활동을 하면서 여름방학 동안 아동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고 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동들은 방학 기간에 또래와 함께 건전한 단체놀이를 하면서 서로 교감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과 협동심,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교실에 참여한 아동은 "시원한 곳에서 친구들과랑 피구도 하고, 컵쌓기를 할 수 있어 무척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선 주민행복과장은 "무더운 여

름 아이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즐기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유대감도 쌓아 또래 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드림스타트는 그 밖에도 올해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의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철곡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사회복지무요원 직무역량강화 및 복무기본교육 연수 실시

최원아 교육장, "사회복지무요원 역량 강화, 특수교육생의 기본적 지식과 태도 구비, 장애학생별 교육활동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활동 기회 함양의 기회"



철곡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8일(화)~9일(수) 이틀간 학교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복지무요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및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무요원의 역량 및 복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영천중앙초등학교 이종대 교사, 대구 경북지방방무청 고광석 복무지도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장애 종류 및 특성, 장애학생의 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세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되었다. 최원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회복지무요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장애학생별 교육활동을 맞춤형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활동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안동에 취하고, 달빛에 취하다" 전통주와 함께하는 '월영 특별 장터' 개최



월영교 민속촌길 일원에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2주에 걸쳐 주말마다 (17시~22시) '안동에 취하고, 달빛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전통주와 함께하는 '월영 특별 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존 월영장터 행사

를 여름 야간 특별판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지역 수공예 제품 전시, 전통주 시음 행사와 함께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클래식 버스킹도 마련해 한여름 밤 야외에서 아늑한 정취를 한껏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SNS 후기 이벤트, 온누리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이 월영 특별 장터를 방문해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전통주와 다채로운 수공예품의 전시·판매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월영장터는 평소 진행하는 수공예 아트마켓 외에 지난 5월 13일 <어린이 그림대회>라는 특별행사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이번 행사를, 가을에는 '원이엄마' 테마를 활용한 또 다른 특별 이벤트를 기획 중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탄소중립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찾는다,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출범

13개 산·연·지자체, 원자력 열 생산·이용 기술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는 1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원자력 공정열 신사업 창출을 위한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발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고 경북도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DL이앤씨, DL케이칼, 어프로티움 등 13개 지자체·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오늘 발족한 협의체는 원자력 열 생산·이용에 관한 △정보교류 및 사업기회 모색 △공동 기술개발 △열이용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및 인허가 방안 마련 등 원자력을 활용해 공정열 생산과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4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SMR의 한 종류인 고온가스로(HTGR)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원자력 고온열을 산업, 에너지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품 제조공정 특성

상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계는 탄소중립 달성이 기업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열 생산 과정에 탄소배출이 없고 수소생산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SMR(소형모듈원자로)이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영국, 인도 등 해외의 경우, 가동 원전에서 생산한 증기를 인근 제지 회사 등에 산업 공정열로 활용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은 멕시코만 인근 화학단지에서 X-energy사의 SMR 4기를 건설해 550도 이상의 고온증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美 USNC사가 고온가스로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증 플랜트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향후 경북도는 원자력 열이용 시스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활용해 울진군과 함께 추진 중인 '원자력 활용 청정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사업도 착실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원자력 열이용 협의체 발족을 통



해 연구기관과 기업이 손잡고 원자력의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공정열, 수소 생산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향후 환동해 지역을 차세대 SMR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태풍 피해 상황조사와 복구 작업에 신속 대응

문무대왕면 원당 세월교 유실, 농작물 58ha(131가구), 해양쓰레기 165톤 발생  
응급복구 필요한 곳 중장비 투입, 예산이 수반되는 건은 국·도비 요청 신속 대응 나서



경주시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상황 조사와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틀간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190mm의 강수량,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지만 인명과 주택 붕괴 등의 대형 피해는 없었으며, 일부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분야별로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문무대왕면 원당 세월교 및 산내 군도 11호선 도로사면 유실, 산내 감천 응급복구 현장 제방붕괴 등의 피해가 있었다. 또 건천·현곡 등 10개 지역 58ha, 131농가에 대해 농작물 침수, 도복 등이 있었으며, 대본·하서 등 6곳에 해양쓰레기 165여 톤이 발생했다. 더불어 강동산단 일부 경사면 도로로토사 유출, 화산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동 지붕 파손, 두류공업지역 진입로 침수 등의 피해도 일어났다.

먼저 시는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에 중장비와 배수펌프 등을 투입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구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서와 읍면동 간 협업체정 확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요청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하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시설물 보강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태용/기자



## 통영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현장점검

산양읍 세포마을 등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 및 피해 상황 점검  
천영기 통영시장, "무더운 날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 근무에 임해준 직원, 현장에서 사전통제/긴급복구를 수행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례

통영시는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 도·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동행했다. 시는 태풍 내습에 대비해 지난 9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

무태세 전환, 현장예찰 및 선제적 조치 실시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9~10일 평균 222.1mm라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는 진행 중이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현장 방문 후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 및 대책을 마련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 근무에 임해준 직원들과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사전통제 및 긴급복구를 수행하신 현장 요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 김천시,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개최

8월 26일(토) 개최, 14일(월) 오후 2시부터 예매 시작-

김천시 문화예술회관(관장 배정화)은 '2023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목적으로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을 오는 8월 26일(토) 오전 11시, 오후 4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은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고 문예회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며 사업비 일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는다. '가족뮤지컬 만복이네 떡집'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수록 도서이자, 누적 판매량 130만 부를 돌파한 기리라 작가의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공연으로 만복이와 장군이 신비한 떡집을 만나 겪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만복이와 부모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이가 교감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과 동시에 친숙하고 다채로운 음악과 시각적 연출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시간은 약 70분 정도이며, 36개월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관람료는 모든 자리 1만 원으로 유료

(특별) 회원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관람권 구매는 8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1588-7890)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공연정보 및 할인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054-420-7824, 홈페이지 <https://www.gc.go.kr/gcart/main.d>

김동현/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끝까지 인명피해 없도록 방심 말라”

### 이 지사, 예천 벌방리 등 기존 피해지역 마을 찾아 직접 현장 지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오후 지난 집중 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예천 감천면 벌방리 등 기존 피해지역 마을을 찾아 현장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벌방리 마을 앞을 지나는 석관천이 폭우로 범람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먼저, 이 지사는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벌방리 노인회관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태풍이 지나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대피해 있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우로 범람 위기에 놓인 마을 앞 석관천 상류를 살피며 “끝까지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마을 복구 상황도 살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청에서 태풍 카논 복상에 대비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논의하고 현장에 가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대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본부는 지하차도 67개 중 위험지역(도4, 시군8)은 대형 소방차로 미리 통행을 막아달라”며 “국민은, 우리 소방은 신뢰한다. 단디 예찰해달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영주시, ‘추석엔 햅쌀’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베기

‘대한광복단 최초 결성지 영주’에서 생산한 ‘8·15 광복쌀’ 박남서 영주시장, “우수한 품질에 애국의 의미까지 더한 8·15 광복쌀을 한 예로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대한광복단 발상지인 함일 의병의 고향 영주시에서 ‘8·15 광복쌀’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다.

영주시는 아직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12일, 안정면 오계리 황순섭 농가의 논에서 ‘8·15 광복쌀’ 올해 첫 벼베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수확한 8·15 광복쌀은 극조생종인 진옥벼, 해당벼, 빠르미로 지난 4월 20일 첫 모내기 이후 114일 만에 첫 수확이다.



시는 8·15 광복쌀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안정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단지 총 20ha(안정면 14ha, 장수면 6ha)를 조성해 재배농가에 생산 장려금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차별화된 햅쌀 공급을 위해 품종 특성에 맞춰 생육단계별 현장 지도를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8·15 광복쌀을 전국적인 명품 햅쌀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벼베기 행사는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고품질 영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며 “우수한 품질에 애국의 의미까지 더한 8·15 광복쌀을 한 예로 앞으로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는 역사적으로 광복절과 관련이 깊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대한광복단이 1913년 영주 풍기에서 처음 조직됐다. 대한광복단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에 있다.

윤근수/기자

#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절차적 하자 없다

## 법제처 질의 결과 “조례 위반 아닌 것으로 확인돼”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2항(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안의 문항에 언급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고 보고,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상주시의회에서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다.

법제처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되어 있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상주시에서 이미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받은 결과도 법제처의 회신내용과 동일하다.

지난 8월 1일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행정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상주시장 주민소환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상주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시민연합에서 실시하려는 주민소환의 명분은 없어졌다.

상주시는 추진 절차상 문제가 없고, 시민 다수의 의견에 의해 낙양동 구)잠사군중사업장 일대로 결정된 만큼 폭넓은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법 제 처**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요 쟁점사항 (요청) : 위헌 여부

목적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1. 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항번호	위헌제시 대상	요청사항 (부서)
제11조 제2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공감책도 상주시 (법제처/상주시)

질의 목적 :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관련문서 : 상주시 의회사무국-2387 (2023. 5. 16.)

1. 질의요지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는 여의없다고 할 것인지를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는 여의없다고 할 것인지를

# 권기창 시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태풍 ‘카논’ 피해복구 지원

‘토사 지우고, 농기계 뉘고’ 일상복귀 위해 땀 흘린 권기창 시장, ‘구슬땀 흘리며 직접 군위군 피해복구 지원에 앞장서는 모범’ 보여줘

권기창 안동시장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일원을 찾아 태풍 ‘카논’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과 아픔을 나누며 빠른 일상 복귀에 힘을 보탤다. 이날 복구 지원에는 안동시청 직원, 안동시자율방범대연합회 회원 등 총 50여 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토사로 엉망이 된 집안과 창고 가재도구를 꺼내 정리하고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정비했다. 또한, 진흙탕 속에 파묻힌 농기계를 꺼내 말리고 사방에 널브러진 농자재, 쓰레기 등 온갖 잔해물을 정비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안동시와 대구광역시는 맑은 물 공급에 맞손을 잡은 후 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우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태풍에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수재민들이 어려움을

당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손이라도 더 거들자는 마음으로 현장지원에 나서게 됐다”라며 “이웃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 수해지역 복구 적극 지원 건의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1일, 제6호 태풍 ‘카논’이 휩쓸고 간 효령면 피해지역을 방문한 흥준표 대구시장과 연이어 방문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당 지도부와 동행하면서 피해지역 복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위군은 이번 태풍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되어 도로와 농가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특히 효령면 병수리, 불로리 일대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날 김진열 군수는 지역을 찾은 흥준표 대구시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에 피해 상황을 전하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흥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긴급 구호물품과 식품 물 등과 함께 긴급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 3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윤 원내대표 또한 수해에산은 물론 내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대구시장 전원이 나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영양군 선바위 메기잡기 열어

영양군은 지난 12일, 영양군 입암면 선바위 소재 사래마을에서 메기잡기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군의회위원장, 군의원 및 군청 국·과장 및 지역 주민, 외지관광객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의식행사로 개회사,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대회장 인사말씀, 오도창 군수 축사, 김석현 군 의회 의장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2부 메기잡기 대회는 오전, 오후로 나눠 황금메기잡기대회를 가졌으며, 이어 행운권 추첨 및 초청가수 무대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메기잡기대회에서 황금메기잡기를 잡은 행운의 주인공들은 남상봉(입암면 신사2리), 김계동(경남 진주), 이상군(입암면 신구1리), 이상국(입암면 신사2리) 등 4명이 황금메기를 잡아 황금반지 1돈이 각각 수여됐다.

이어, 초청가수 무대와 행운권 추첨이 진행됐으며, 행운대상으로 대형 155인치 TV는 영양군 입암면 신사1리에 계시는 강순남씨가 수상하는 기쁨을

가졌으며, 이외에도 대형냉장고 등 많은 푸짐한 상품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 나눠져 모처럼 활기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바위 추진위원중 한분인 L모 씨(사래길 소재)는 “타지역이 태풍 등의 피해로 수해복구를 하고 있기에 이번 행사가 열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돼, 기쁘다”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해 준 군정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하 드린다”고 말했다.

우재운 선바위메기축제 위원장은 “이렇게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이번 행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맑게 이번 행사를 즐기시고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사에서 “그동안 호우와 태풍속에서도 우리 군은 축복받은 은혜의 땅으로서 튼튼한 방축을 쌓아 큰 피해없이 잘 견뎌왔다”면서 “이 모든게 군민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였다”면서 “오늘로서 지난 폭우, 태풍의 피곤함으로부터 탈피해, 행복한 일상생

윤근수/기자

## 영양군

YEONGYANG-GUN

# 전남도, 동부권 숙원 여수~순천~서울 수서 SRT 운행한다

### 9월부터 전라선 하루 4회 직행...11일부터 예·발매 가능

전라남도는 9월 1일부터 전라선에 여수~순천에서 서울 수서행 SRT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SRT 운영사인 (주)SR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 확대 운행에 대한 노선 면허를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았으며 다른 것이다.

예·발매는 11일부터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운행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선 SRT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첫 출발해 수서역에 도착하는 등 각 하루 2회 왕복 운행으로 총 4회 운행된다.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이나 서울역까지 매일 KTX만 30회 운행되고 있으나 여수~수서 간 SRT가 4회 운행되면 34회로 늘어날다.

경부선·호남선 동시 운행되는 평택~오송 병목구간이 2027년 2복선화 되고 KTX-SRT 차량이 추가 도입되면 열차 운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은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가 없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까지 간 다음 서울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환승 필요가 없어지고 이동 시간이 단축돼 교통 불편과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과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요구했다. 그 결과 9월 1일부터 전남 동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전라선에 수서행 고속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환승 불편이 해소돼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고속열차가 증편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 열차 운영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만국가정원에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순천정원박람회장서 8월 15일까지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열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정원박람회장에서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무궁화 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산림청이 주관하는 행사로 1991년부터 매해 서울, 세종, 천안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으며 올해로 33회째를 맞는다.

이번 무궁화 축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 기간 순천만국가정원(서원 국제습지센터 일원) 실내외에서는 무궁화 분화 전시를 비롯해 무궁화 볼펜 만들기, 인생네컷, 무궁화 품종해설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전국에서 출품한 700여 점의 무궁화 분화는 WWT 습지 돌레와 아바타정원, 그리고 정원역 광장까지 국가정원 서원 일대를 둘러싼 전시 형태

로 이뤄져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 작품 중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무궁화 품평회로 선정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 우수 분화도 감상할 수 있다.

산림청과 조직위는 이번 정원박람회와 무궁화 축제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정원 서원에 100㎡에 달하는 '무궁화 정원'을 조성했다.

정원박람회와 연계된 이번 무궁화 축제로 각각각색의 무궁화와 박람회장의 수많은 여름꽃이 어우러져 여름정원의 특별한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관규 이사장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나라꽃인 무궁화가 가진 매력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인 정원박람회장에 오셔서 정원 속에 활짝 핀 무궁화도 감상하면서 더욱 특별한 여름정원을 만끽하시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 이젠 행정업무도 스마트하게! 남원시 태블릿 PC활용 스마트행정 본격 추진

###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 없는 회의 도입, 모바일 전자결재 시행



남원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11일 현안보고회의를 기점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없는 회의 도입과 모바일 전자결재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초 태블릿PC 80대를 구입, 전 부서에 배부했으며,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번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구축으로 각종 회의자료 출력으로 소비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자료 검색까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본격적인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향후 효율성에 따라 원격 화상회의와 현장 방문 등에 태블릿 PC활용 스마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종이 없는 회의, 모바일 전자결재 등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회의와 보고서 태블릿PC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다채로운 직무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완도군, '여름의 휴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성료

### 완도 특화 자원 활용 요리 교실 등 총 662명 참가

완도군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 성수기 동안 신지연 소재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름의 휴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주민과 관광객 등 총 662명이 참여했으며 1일 3회,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노르딕워킹과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해양문화치유센터의 후각동(비누·캔들 만들기), 촉각동(풍경 만들기), 미각동(완도 특화 자원 활용 요리 교실)에서 문화치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에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뜻밖에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

다", "문화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든 캔들과 비누 향이 너무 좋고 특히 바다를 형상화한 비누가 예뻐 선물을 받고 가는 기분이다", "하루에 다양한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서 힐링했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앞으로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은 9월 17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하고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양기후·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된다.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 문의는 해양문화치유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증진 및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영울/기자

#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함평' 실현

### 제5기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청렴 함평 실현 의지 다짐

전남 함평군은 10일 "제5기 신규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은 읍·면장직의 추천을 받은 기존 10명에서 금번 건설기술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위법·부당한 군정에 대한 제보, 군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군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군은 권익위 청렴

전문강사인 정영오 박사를 초빙해 '청렴 명예감사관의 역할과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 정박사는 명예감사관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임을 강조했다며 감사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청렴의식, 타 지자체의 우수 활동 소개 등 향후 올바른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감사활동 현황 및 반부패 청렴시책을 안내했으며 청렴 명예감사관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감사관들께서는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이라는 높은 자

감심으로 위법부당한 행정 제보 및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군민중심의 행정

을 펼치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 나주시-전력거래소, '사암 박순' 생애 재조명 청렴 특강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특강



나주시와 한국전력거래소가 나주 출생 청백리이자 명재상인 사암 박순(思

菴 朴淳) 선생의 청렴한 일생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남 전력거래소 본사 제1강의실에서 '사암 선생의 위대한 삶과 현대 청렴사회에서의 가치'라는 주제로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강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 제2기 전력거래소 시민참여 혁신단, 사암 박순 종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이종범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의 '사림 재상 박순', 최영성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나주사람, 사암 박순'을 주제로 진행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 출신 청백리인 사암 선생의 청렴한 생애를 되돌아보며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청렴한 사회를 그려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나주시와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사암 선생 추모 공간인 '월정서원'(나주 노안면 금안리 소재) 환경 정비와 선생 업적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에 협력할 계획이다.

조선 중기 문신 박순은 1523년(중종 18년) 성군관 대사성과 전주 부윤을 지낸 박우(1476~1547)의 둘째 아들로 나주시 양곡면 송죽리에서 출생했다.

1553년(명종 8) 정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다. 대사헌, 대사간 등 청요직을 거치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했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菴), 시호는 문충(文忠),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김영진/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스카우트 대원 마지막한 명이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

### 세계잼버리 참여 도민들께 감사와 먹먹한 마음 전해

김관영 지사는 11일 간부회의에서 세계잼버리 공식일정과 사후관광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11일 오후 세계잼버리 폐영식과 케이팝(K-POP)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사후 관광프로그램과 JB스카우트의 밤에 참여하는 500여명의 대원이 아직 전북에 남아 있다면서, 각 나라 대표단이 생생한 추억과 감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도 공직자와 시군 공무원들이 애써 주셨고, 많은 자원봉사자 등 도민들께서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초기에 계획했던대로 행사가 치러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하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태풍 카논의 큰 피해가 없으므로, 지난 31일 행안부의 수

해 피해지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7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태풍 피해 등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기재부 국가예산 3차 심의단계에 돌입하므로, 16일까지 기재부와 부처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득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위해서도 17~18일 전북도청에서 갖는 워크숍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소통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전북의 특례 반영을 지원하는 우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도 확진시 쉬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박차

### 2023년 11월 완공 목표... 청년 정착 기반 마련

강진군이 병영성 인근에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관련 공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들의 공유 주거시설을 조성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진군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비를 위해 청년 마을의 청년들과 4차례에 걸쳐 미팅 및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 28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은 전라병영성 인근 성남리에 2023년 11월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연면적 373.50㎡의 2층 건물로 셰어하우스형 숙소(1동) 및 커뮤니티센터(1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설이 건립되면 병영시장, 불금불파 청년 창업공간과 연계해 청년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창업에 선도적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군은 불금불파 축제장 내 공간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청년 창업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병영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젊음과 다양성으로 새롭

게 변하는 병영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정착한 후에는 전원주택 1,000세대 및 빈집 정비 1,000세대 조성사업과 연계해 청년과 주거지를 1:1로 매칭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을 찾는 청년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 어려워, 꿈을 펼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강진군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지원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도전과 병영시장 내 불금불파 행사와 연계해 청년창업을 배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진군은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청년 마을만들기'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년에 2억씩, 3년 동안 총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2주~4주동안 '강진에서 살아보기', '지역탐색 및 취·창업 체험' 등에 참여한 청년 중에 최종 11명이 강진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

추윤호/기자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 조감도

# 진도군, '내가 만드는 건강한 간식' 실습 교육 운영

###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 어린이·청소년 참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대



진도군 보건소는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의 어린이·청소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건강한 간식'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청소년의 자발적인 건강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건강한 간식 만들기'를 실습 교육으로 추진해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평소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지 않는 아동들의 식습관을 고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활용한 과일 요거트와 토마토 롤 샌드위치 등 건강한 간식을 아동들이 직접 만들고 맛을 보았다.

아이들이 평소 싫어했던 식재료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등 아동들이 건강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간식 만들기에 참여한 어린이는 "채소를 잘 안 먹는 편인데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서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며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었고 앞으로는 채소를 잘 먹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담당자는 "다양한 영양 교육을 통한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화순군, 마을주치의와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 더 편하고, 더 충분한 통합 보건의료·건강증진 프로그램

화순군이 운영하는 마을주치가 장마와 폭염에도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진료 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한 마을주치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의과, 한의과, 치과), 보건 인력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맞춤 진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내과 6,488명, 치과 1,769명, 한의과 5,969명 등 총 14,226명을 진료했다.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보건진료소가 중심이 되어 치매,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노래교실, 건강 체조, 원예·미술 활동을 제공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한 미술 활동을 통해 완성한 동년 가로마을 어르신들의 소중한 작품 30여 점과 그동안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생 첫 경험"이라는 주제로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동년 가로마을 경로당에 전시된다.

황 판임 어르신(80세)은 "그림을 그리는데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고, 그림 그리기 활동이 기대됐다"라며 "특히, 우리 그림 그리기로 전시회를 하니 뿌듯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어르신 의사각각해 해소를 위해 화순군보건소의 찾아가는 진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윤경호/기자



# 신안군 2023년 소금박람회 개최

###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

신안군은 서울 코엑스에서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3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소금박람회는 6가지 테마관 총 81 부스로 운영이 되며, 천일염이 식품을 뛰어넘어 미용, 건강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성을 선보인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는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브랜드관에서 천일염 생산단체와 관련 업체 등 15개 업체가 참여하여 중소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

량 구매, 명절선물 판로개척은 물론 다양한 신안천일염 제품을 선보이고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비자가 다양한 분야의 소금 제품을 접하게 되면서 신안천일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알게 될 것이라며, 소금박람회를 통해 천일염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이번 소금박람회 기간에 (사)대한민국김치협회, (사)한국조리학회, 한국호텔리조트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안천일염 활성화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구례군, 신규농업인 버섯·양봉 재배 기술교육 개강

### 버섯, 양봉 교육 총 8회, 초보 귀농인 영농 기술 교육 실시로 안정적 정착 유도



전남 구례군은 9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신규농업인 23명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 기술교육 버섯·양봉 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버섯 교육 4회, 양봉 교육 4회 총 8회(32시간)로 진행된다. 버섯 전문가와 양봉 전문가가 실용성 높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버섯 종균, 원목 표고 재배 기술, 톱밥 표고 재배 기술, 마케팅 및 농장 경영 관리, 꿀벌 생

리 및 밀원식물, 꿀벌 관리 및 강군 만들기, 양봉 사양관리와 질병 치료 등이다.

김순호 군수는 "신규농업인들의 시행착오는 줄이고 자신감은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에 소재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지원, 교육, 상담 등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현/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 태풍 피해지역 현장 점검.. "수습과 복구에 집중"

### 속초 소야교, 관광수산물시장 방문하여 꼼꼼하게 피해현장 확인



11일 오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속초시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했다.

김진태 지사는 먼저 소야교를 방문해 청초천 우측의 침수된 농경지 상황을 확인 점검했다. 청초천은 범람 수위를 단 30cm 까지 남겨들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범람하지 않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현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리 하천인 청초천의 배수

력 강화를 위한 하천 준설을 요청했으며, 이에 김 지사는 동해안 6개 시군과 함께 하천 준설 추진을 검토하면서 청초천도 준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전날 침수 피해를 입은 속초관광수산물시장으로 이동하여 이병선 시장으로부터 어제 태풍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브리핑 받고, 현장을 점검하며 복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상인들을 만나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아프다"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고, "신속한 복구 작업으로 여러분이 다시 생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 속초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에서는 속초 재해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7천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신청 시 5년간의 이자(고정 2%)를 전액 지원하고, 사업장·집기·비품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업체당 2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6호 '카눈'은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동지역에 초속 20~30m의 강풍을 동반하며 동해안 지역에 '물폭탄'을 내렸다.

동해안 6개 시·군의 누적강우량이 평균 347mm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고성군은 402.8mm, 속초시 364.5mm를 기록했다.

이러한 강풍과 폭우 속에서도 다행히

도내 인명피해는 1건도 없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상황관리를 통한 신속대응에 전념했으며, 시군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위험지역 294세대, 690명을 일시대피 시켰고, 둔치주차장 18개소, 하천변 산책로 240개소 등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아울러, 재난문자(110회), TV 자막(1회), 마을·산간계곡방송(51회/1,960개소), 민방위경보(22회/393개소), 전광판(89개소), SMS(115회/142,192명) 등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진태 지사는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참 다행"이라며 "이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집중할 시간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빠른 시간 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응급복구 지원단을 편성하여 동해안 시·군의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속초시, 태풍 카눈 피해복구에 전 행정력 집중

### 11일부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시 전역에 복구활동 총력

속초시가 제6호 태풍 카눈(KHANUN)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내습한 10일 속초지역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는 등 9일과 10일에 걸쳐 누적 352.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속초시에 이번 태풍으로 주택 및 상가 등 침수 피해 186건을 비롯해 하수도 역류, 축대 무너짐, 산사태 등 총 227건의 피해가 접수(10일 23시 기준)됐다.

속초시는 10일 폭우가 시작되자 전 공무원들을 시 전역에 투입하여 도로통제와 침수피해가 시작된 주택과 상가에 대한 긴급 배수 지원을 실시했으며, 비가 잦아들고 침수된 지역이 빠르게 물이 빠지자 긴급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11일부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피해 복구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를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와 함께 시청 공무원들 각 동에 배치하여 동장 지휘 하에 침수 피해 지역 주변 정리와 복구활동에 나섰다.

또한, 속초해경, 지역자율방재단, 동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들도 주택과 상가 등 침수 피해 현장에 방문하여 일손을 도우며 신속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속초시는 피해복구를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원래의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태백시, 관문(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태백시는 지난 9일, 태백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관문(두문동재) 경관개선 기본방향 및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혜교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실과장 및 관련 부서 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최종 보고에서는 향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방식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화장실, 상징조형물 및 경관조명, 파고라, 쉼터 조성사업 등은 각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 관문 경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이 담긴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개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성근/기자



# 춘천시, 요금 못 낸 학생, 춘천시민버스에 음료 300병 깜짝 선물...지역사회 훈훈

###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50분께 중학생 버스 탑승 후 요금 결제 인식 불가

버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곤란을 겪던 한 중학생이 춘천시민버스 승무원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후 춘천시민버스에 음료를 선물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춘천시와 춘천시민버스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50분께 A중학생은 학원을 가기 위해 3번 버스에 올랐다.

버스에 탑승한 후 요금 결제기에 카드를 여러 차례 넣었지만, 그날따라 웬일인지 인식이 되지 않았다.

A중학생은 그제야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였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잠시 고민하던 A중학생은 버스에서 내리려던 찰나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김시원 승무원이 괜찮다며 그냥 타도 된다고 말했다.

규정상 그 자리에서 요금을 계좌이체해야 하거나 내리게 해야 하지만 김시원 승무원은 어린 학생을 배려한 것.

자칫 운전기사가 큰 소리로 무안을 줬다면 학생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었으나, 기사의 배려로 학생은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학생은 배려해준 기사님에 대한 고마움에 차량 번호를 기억했다가, 춘천시민버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부모님은 음료 300병을 춘천시민버스에 전달했다.

김시원 승무원은 "작은 일에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춘천시민버스 관계자는 "갑자기 음료 300병이 배달되어서 깜짝 놀랐다"라며 "춘천시민버스 종사자 모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에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원주시, 제22회 치악산 복숭아 축제 개최

전국 최고의 맛과 명성을 자랑하는 제22회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원주시 명륜동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된다.

원주시가 주최하고 치악산 복숭아 원주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19개 작목반이 참여하는 품평회를 열어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3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또한, 품평전을 통하여 치악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행사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치악산 복숭아 판매 행사를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개회식이 열리는 19일에는 식전행사로 M-club난타팀과 아랑고장구의 공연을 선보이고, 식후행사로 개구맨김명덕씨의 사회로 나팔박, 유채아, 문영선 등 초대 가수의 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열기를 한층 드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체험 이벤트 행사로 복숭아 길게 깎기, 손 안대고 복숭아 빨리 먹기, 복숭아 노래자랑, 복숭아 먹고 힘내라 팔씨름대회, 복숭아 OX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축제에서는 정지들고추장, 치악산 황골엿, 토토미원주빵, 복숭아잼 등 지역에서 생산·가공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치악산 복숭아 축제'는 원주의 대표

농산물인 치악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8,000여 명이 축제장을 방문해 치악산 복숭아(4kg) 4,500상자를 1억 8백만 원에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6,000상자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은 "올해는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와 우박피해 그리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출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치악산 복숭아의 명성은 변함이 없으며 이번 축제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즐거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수도권에 다채로운 충남 관광 알린다

## 2023 대백제전, 금산인삼, 서산해미읍성축제 등 9-10월 열리는 축제 집중 홍보

충남도가 수도권에 2023 대백제전 등 다음달부터 열리는 대표 축제와 볼거리, 체험거리 등 다채로운 충남의 관광자원을 알린다.

도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 대백제전, 금산인삼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등 9-10월 열리는 축제와 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공주·서산·계룡·금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9개 시군과 함께 참가한 도는 사방 개방형 홍보관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계절별 이색 축제와 충남 웨케이션, 충남 한달살이 등 체류형 관광상품 및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관광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는 먹방여행지로 떠오른 예산상설시장과 노을 경관이 아름다운 홍성 남당항의 해양분수공원, 반려동물과 버스여행을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댕댕버스' 여행이 진

행되는 태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등이 있다.

이날 관람객들은 다채로운 충남 관광에 대한 정보는 물론 백제의상 복식체험, 충남 관광지 스피드 퀴즈, 인삼주담그기, 느린 엽서 발송 이벤트, 시군 통합 숲놀이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와 함께 공주 알밤과 한산소곡주, 금산인삼주, 예산사과 등 특산품 시식을 통해 충남의 맛과 멋을 함께 느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대백제전을 비롯해 충남의 다채로운 축제와 여행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관광객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7개 기관에서 후원하는 박람회로 올해는 400여 개의 홍보관을 운영했다.

최정근/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 수해 지역 찾아 애로 청취 등 아픔 함께 나뉜

## 오송복지회관 방문, 배식봉사 및 애로사항 청취

이범석 청주시장은 11일 수해 복구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임시대피시설을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어 도배·장판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의 한 가정을 방문해 작업 상황을 살피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이어, 67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처 생활하고 있는 오송복지회관을 방문해 점심 식사 배식봉사에 참여하고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태풍이 북상해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뵙게 됐다"며,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재민은 총 644명 중 76명이 남아있고, 대피 장소는 오송복지회관 등 5개소이다.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임시 대피한 5명은 복귀 완료했다.

고정화/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여성커뮤니티센터, 소외된 여성 더 살피길"

## 아산시, 호서대 산학협력단과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 위탁 협약

아산시는 11일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 위탁 운영 협약식을 했다.

'나온'은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건립된 여성커뮤니티센터로, 공모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달 호서대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은 국토교통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사업을 통해 연 면적 768.59㎡(지상 3층), 대지 427㎡ 규모로 건립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온'이라는 명칭은 주체성을 뜻하는 한글 '나'에, 스위치를 켜는 의미의 영어 온(On)을 합성했다. 또 '온'에는 아산시의 대표 관광지인 온천의 온(溫)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나온'은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식 개관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3년이다.

'나온'의 주요시설은 △1층 돌봄 공간, 열린 카페 △2층 다목적 공간, 소교육실, 공유주방 △3층 공유오피스, 임대사무

실, 유틸부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약식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는 여성회관도 없고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부족한 편이다.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이 그 역할을 충족시키는 여성 활동의 플랫폼이 돼 주길 바란다"며 "원주, 성남 등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장점을 살려 아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특히 "지역사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탁 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시설의 수혜가 골고루 가도록 운영해달라"면서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자립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먼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원교 단장은 "호서대에는 취창업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많다. 이와 연계하면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나온'이 지역 여성의 복지증진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원호/기자



# 충북도 재난안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 김영환 지사,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충청북도는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방침 아래, 11일 충북연구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각계 인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안전 관련 별도 조직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했다.

별도 조직은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속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도민 안전교육과 안전분야 강사 양성, 도민 안전의식조사,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유가족과 재난관련 종사자 심리치료 등 안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구심체이자 싱크 탱크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구 열대화로 인한 극단적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빈번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비롯하여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흉기난동과 마약, 우편물 생몰테러 등 신종재난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위험이 사회의 중심현상이 되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노

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준비모임에 참석한 각계인사와 전문가들은 안전 관련 별도 조직 설립에 공감하며, 조직 설립 준비 방안 및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과 안전관리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설립 등 안전한 충북으로의 개조도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될 충북형 안전 비전과 전략과제 마련을 위한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연구용역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 충청남도, 천안 케이(K)-컬처 '세계'박람회로 성장시킬 것

## 김태흠 지사, 11일 박람회장 참석해 2026년 세계적 행사로 성장 지원 뜻 밝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 케이(K)-컬처박람회를 국제적인 박람회로 성장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케이(K)-컬처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천안은 지난 20년간 흥타령 춤 축제를 국제행사로 발전

시킨 저력이 있다"며 "2026년에는 케이(K)-컬처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에서도 천안이 가진

높은 문화의 힘이 케이(K)-컬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사람들이 보통 천안하면 호두과자를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천안하면 '문화도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이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천안시민들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을 이끌었고, 독립기념관은 70만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며 "박람회 기간 천안이 가진 높은 문화의 힘이 발휘돼 국경일에만 찾는 곳이 아닌, 1년 내내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될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마쳤다.

2023 천안 케이(K)-컬처박람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 기간 행사장에서는 케이-팝(K-POP)을 비롯해 웹툰, 패션, 춤, 음식 등 다양한 케이(K)-컬처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강승규 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정근/기자

# 오세훈서울시장, "태풍 끝날 때까지 긴장 풀지 않겠다...시민 불편·피해 예방 최소화 노력

시, 재대본 1단계 발령...시·구 3,470명 근무 중, 27개 하천 및 서울둘레길 등 주요숲길 선제 통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서울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오전 7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서울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오전 7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내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태풍 관련 특보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강 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3,470명이 비상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는 호우경보 3시간 강수량 90mm 이상, 12시간 180mm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앞서 서울시는 8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제6호 태풍 카눈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하천 제방 등 주요 방제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천 변과 공사장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서울이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이틀간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1단계 비상근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 시내 전체 27개 하천과 서울둘레길 등 주요숲길 380개 노선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태풍 취약지역 등의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전광표지로도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 중이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와 빗물받이, 도로사면, 포트홀 등을 점검하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 및 정비하는 등 태풍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도 취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먼저,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실(성동구 청계천로 540)을 방문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태풍대비 상황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관리·통제 등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서울시설공단 앞 청계천으로 자리를 이동해 하천을 둘러보며 시민 통제 대응 상황, 시설물 및 침수피해 현황 등도 확인했다.

이어 11시 20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을 찾은 오 시장은 구조구급 대책과 상황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풍수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원활한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시민 불편 등 피해 상황을 최대한 줄여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 철저한 태풍 대비와 시민협조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신속 복구 총력

부산시, 신속히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재해취약계층에도 세심한 보호를 소홀함 없도록 할 것

제6호 태풍 카눈이 부산지역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뿌리고 지나갔지만, 부산시는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대비로 인명사고 없이 피해를 최소화했다.

지난 9일 오후부터 부산지역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었음에 따라, 시는 이보다 이른 낮 12시부터 비상 2단계로 전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상황 관리 및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본격적인 태풍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별도로 시의 국장급 공무원들 상황반장으로 지정, 24시간 재난상황실에 상주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재난대응 이력력을 높였다.

특히, 시는 '선제적 위험지역 발굴 및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재난대응 기조로 시 간부 221명을 구·군 위험지역 행정지원책임관으로 급파해 산사태와 침수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을 직접 점검했다.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 지하차도, 하천 등 재해우려지역 1천122곳에 대한 긴급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관리지역 외 재해우려지 109곳도 추가 발굴해 이곳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9일 오후 2시 15분 태풍 대비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태풍의 위험성과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고, 노후건축물 등 재해우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와 주민대피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밤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키며 태풍 대비·대처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겼다.

아울러, 시는 긴급히 해수욕장 시설

물을 철거하고 선박(3천504대, 8.9 기준)을 피항 조치했으며, 출근시간대에 태풍이 최근접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철도 지상구간 미운행 등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했다.

실시간으로 강우량과 풍속 등 태풍의 영향을 파악하며 하천 변, 지하차도, 교량 등 위험지역 111곳(8.10. 09:00기준)을 통제했고, 안전등급이 낮거나 노후해 침수 및 붕괴 위험이 큰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274세대 451명을 긴급 사전대피(8.10. 09:00기준)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피해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명사고는 없었으며 배수불량·차량고립 구조 등 679건의 단순피해(8.11. 07:00기준)가 발생했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태풍 카눈의 경로와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시·구·군·소방·경찰 등 안전관리 인력이 총출한 협업체제로 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집중 관리해 인명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시민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안전조치에 성실히 응해 준 부산시민 여러분의 빛나는 안전의식 덕분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태풍은 10월까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피해복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 함께 재해우려지역(급경사지, 상습침수지역 등)에 주변 거주하시는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시민안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희태/기자

# 한강을 안전하게!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 반려견순찰대 '그레이트 한강 합동순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8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밤에 한강시민공원 합동순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문자나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야간 여가 활동이 활발한 한강시민공원 내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그레이트 한강 합동순찰'을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8월 4일에는 반포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대 △서울시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밤배경찰서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백석예술대학교 대학생 순찰대가 참여하여 범죄 취약지역과 서래섬을 중심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다.

'그레이트 한강 합동순찰'은 여의도·반포·망원·뚝섬 등 시민 여가활동이 밀집된 한강공원의 치매광장과 실족 위험지역, 범죄예방 안전시설물(보안등, 긴급비상벨 등) 등을 반려견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일반시민이 함께 집중 순찰

하고 점검한다.

합동순찰 일정은 지난 8월 4일 반포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8월 18일 마포 한강시민공원, 8월 25일 뚝섬 한강시민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철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서울숲·보라매 공원·북서울 꿈의숲 등 도심권 공원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을 순찰하면서 우리동네 여성안심귀갓길,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 설치된 '범죄예방시설(안심 비상벨·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치안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발적 순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문자나 범죄로 인해 시민

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합동순찰과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범죄를 예방하는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unesco 세계지질공원 citiuslow 산소카페 청송군

##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Refresh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 SK하이닉스, 세계 최고 용량 LPDDR5X D램 양산

### 현존 유일 24GB 패키지 양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 HKMG 공정 적용, 초저전력/고성능 동시 구현 “고객 요구수준을 선도적으로 맞추며 프리미엄 D램 시장 주도”

SK하이닉스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고성능 D램인 LPDDR5X\*(Low Power Double Data Rate 5 eXtended)의 24GB(기가바이트) 패키지를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LPDDR5X 양산에 성공했고, 이번에 모바일 D램으로서는 처음으로 24GB까지 용량을 높인 패키지를 개발해 납품에 들어간 것이다.

\* LPDDR: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 규격으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전압 동작 특성을 갖고 있음. 규격명에 LP(Low Power)가 붙으며, 최신 규격은 LPDDR 7세대(5X)로 1-2-3-4-4X-5-5X 순으로 개발됨. SK하이닉스는 8세대 LPDDR6가 공식 출시되기 전 지난 1월 LPDDR5X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자체 명명 제품 ‘LPDDR5T’도 개발해 고객 인증을 진행 중임

SK하이닉스는 “당사는 LPDDR5X 24GB 패키지에 HKMG(High-K Metal Gate)\* 공정을 도입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동시 구현해낼 수 있었다”며, “이번에 현존 유일의 24GB 고용량 패키지를 당사 모바일용 D램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앞으로 고객 요구에 훨씬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HKMG: 유전율(K)이 높은 물질을 D램 트랜지스터 내부의 절연막에 사용해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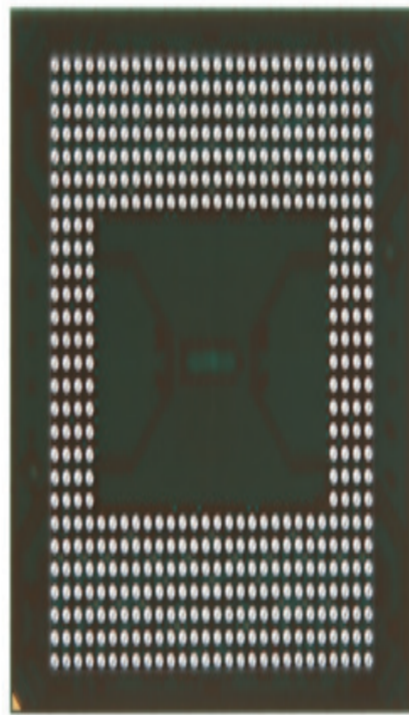
(Capacitance)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음.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D램에는 세계 최초로 HKMG 공정을 도입해 LPDDR5X 양산에 성공한 바 있음

LPDDR5X 24GB 패키지는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JEDEC)가 정한 최저전압 기준 범위인 1.01~1.12V(볼트)에서 작동한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68GB로, 이는 FHD(Full-HD)급 영화 13편을 1초에 처리하는 수준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회사는 지난달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OPPO)에 신제품을 양산해 납품했다. 오포는 이를 자사 최신 플래그십(Flagship) 스마트폰인 ‘원플러스 프로 2 프로(Oneplus Ace 2 Pro)’에 탑재해 10일 출시했다.

오포 루이스 리(Louis Li, 李杰) 마케팅부 부사장은 “SK하이닉스로부터 적기에 24GB LPDDR5X를 공급받아 당사는 세계 최고 용량의 D램을 채용한 스마트폰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길어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물론, 최적의 멀티태스킹 환경을 신구 스마트폰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스마트폰은 성능이 빠르게 향상돼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넘어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AI 시대에는 필수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IT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AI 환경



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이 분야 메모리 시장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 엣지 디바이스(Edge Device): 빅데이터가 이동하는 전체 구조(클라우드/데이터센터-인터넷 망-네트워크설비-엣지 디바이스) 중 일반 사용자와 가까운 가장자리(Edge)에서 사용되는 개인 스마트 기기, 차량, 사물인터넷(IoT) 등의 장치를 의미함

SK하이닉스 박명수 부사장(DRAM 마케팅담당)은 “IT 산업 전 영역에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바일 기기 외에도 PC, 서버, 고성능 컴퓨팅(HPC), 오토모티브(Automotive)

등으로 당사 LPDDR 제품의 사용처가 늘어날 것”이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성능의 제품을 선도적으로 공급, 탄탄한 기술 리더십으로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충남 천안 그린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및 협력기관 모집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창수)이 그린스타트업타운(GST)에 입주할 스타트업과 기업육성 지원을 함께할 협력기관을 모집한다. 입주기업은 6개 사 내외로 모집하며, 모집 대상은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정밀의료, ICT(빅데이터, 인공지능, 비대면 플랫폼 등), ESG 분야 등의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이다.

GST에 입주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과 공용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아이템 및 기업역량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1:1 전문가 컨설팅, 기술사업화 및 R&D 기획 지원, 복지·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협력기관은 GST와 함께 관내 스타

트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유관기관이 대상이며, 입주 전제형의 협력기관, 상시 입주하지 않으나 필요시 스마트 오피스 및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회원기관(기업지원), 연구기관(R&D지원) 3개 분야로 신청 가능하다.

김창수 진흥원장은 “다양한 산·학·연·관 협력기관과 공동지원 전략을 통해 지속성장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 및 투자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며, “GST 입주기업이 이렇게 구축된 창업 생태계 안에서 무한 동력의 날개를 달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및 협력기관 신청의 자세한 모집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GS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 강원도, 농식품부에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건의

### 그린바이오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기업 애로사항 수렴, 인프라 시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8.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 국립축산식품부, 강릉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과 함께 '강원 그린바이오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기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팀장, 김홍규 강릉시장, 장종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장, (주)대동, (주)환인제약, (주)단정바이오, (주)청아푸드 등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천연물 소재 생산 및 원료공급 방안 등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계약재배 사례, 수출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 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활성화 등 천연물 산업 글로벌 육성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강원 그린바이오 기업(유니콘, 상장기업) 15개사, 산업수출 10억 불 달성, 일자리 창출 1.5만 명 육성방안 등을 발표했다.

(주)대동에서는 국내 천연물소재 원료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첨단 원료 생산 공급시설 구축 및 지능화 플랫폼 도입으로 고품질 대량생산 기술개발 필요성을 건의했고, (주)환인제약, (주)메디헬프라인에서는 천연물 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농가와 계약재배 매칭 및 스마트팜 생산 실용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진부농협에서 건의식, 의료용 원료소재인 당귀를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한 후 (주)한국콜마 등에 납품하여 연간 53억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한 사례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석성군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강원도는 천연물 소재 산업의 최적지이다. 천연물 산업을 1차 농림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화장품, 의약품 산업 등과 연계하여 국내 농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범용적 친환경 웰빙 소재 산업”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천연물을 활용한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 또 기재부 방문.. 국비 9조 5천억 확보 사활 걸다

### 기재부 예산실 연이어 방문, 3대 미래산업 및 주요 SOC 사업 국비지원 건의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국비 9조 5,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재차 찾아가 목표 달성에 사활을 걸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8월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최종 심의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가, 주요 현안사업과 SOC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재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3대 미래산업을 위한 예산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예산안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9월 초 국회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현재 최종 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부터 실무진까지 기재부 담당자들을 살사 찾아가다니며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제출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기재부 설득전을 펼쳐나갈 방침이며, 기재부 제출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며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등원/기자

## 권تم 점프를 위한 남다른 선택!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Who is the next?

- 원스톱투자지원단 운영**
  -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개월 내 원스톱 투자지원
  - 15개 기관 투자지원협의체 ▶ 중요사업 해결책 모색
  - 30개 기관 340명 실무지원단 ▶ 사업 발생 즉시 맞춤형 신속지원
- 원활한 인력수급**
  - 산·학협력 39개 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인재양성 | 전자정비기기, 미래차원 부품 분야 인재양성(RIS사업)
  - 인재양성 | 삼성전자 - 경북대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운영
  - 인재양성 | 삼성전자 - DG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 우수인력 | 대구권 51개 대학 연간 7만명 인재 배출
- 최적의 투자 입지**
  -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단지, 제2국가산단 등 건설
  -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4개 국제항만
  - 전국 모든 곳으로 열려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 5대 미래산업 집중육성**
  - UAM연계 미래모빌리티**
    - SKT(소형) 합성 UAM 기반 구축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모터, 배터리, 마이크로EV)
    - 기업이 몰려드는 자율주행산업 허브 구축
  - 반도체**
    - 첨단센서 반도체 패키징 등 산업 생태계 조성
    - D-FAB 생산력 확보를 위한
    - 센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DGIST 센서소용연구소 설립 운영)
  - 로봇**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이동식 합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서비스로봇 실용 및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연구 (메이커수-수용계,가발-심중, 환로계) 지원
    - 의료산업 사업화(연계) 지원
    - 디지털 치과클러스터 구축 및 디지털치료제 육성
  - ABB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 수성암사터 디지털 혁신지원
    - 과기부 5대 협력프로젝트 추진
    - ABB성장동력 운영

상담·문의 | 대구광역시 투자지원과 • 반도체, 헬스케어, ABB T. 053-803-3321-4 • 모빌리티, 로봇, 유통·물류 T. 053-803-6211-2, 3471-2

# 경북교육청, 태풍 '카눈' 피해 학교 복구에 전력!

신속한 복구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임종식 교육감, "학생·교직원 안전과 교육시설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 재 강조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일(목), 제6호 태풍 '카눈'의 강한 바람으로 경주 외동 중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의 교육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태풍 '카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지난 10일(목)은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 중이었으며, 개학 중인 학교도 휴업과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태풍의 피해에 대비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학생 인명 피해는 없었고, 교육시설 일부 피해 발생한 학교는 총 9교다.

이중 일부 누수, 토사 유출 등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4교는 복구가 완료됐으며, 5교는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구가 진행 중인 5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필로티 천장 일부 탈락 ▲

교사동 외벽 드라이비트 일부 탈락 ▲ 양궁장 메쉬웬스 기울어짐 ▲ 나무 쓰러짐 ▲ 교사동 천장 일부 누수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교육청은 복구가 진행 중인 학교는 피해 현장에 안전선 설치와 출입을 통제해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했고, 2학기 개학 전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신속한 복구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교육시설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상주교육지원청, 2023년 을지연습 사전 교육 실시

안보의식 고취와 위기관리 능력 배양  
김중윤 교육장, "이번 을지연습으로 비록 가상 훈련이지만 실전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임무에 충실해 줄 것" 당부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목), 3층 대회의실에서 청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을지훈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사전환절차연습과 개전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을지연습'

을 대비하여 을지연습 중점 및 세부추진 연습내용, 주요 일정과 조직기구 편성에 따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윤 교육장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하여 비록 가상 훈련이지만 실전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 경북교육청, '울릉도'에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개최

8.16.~17. 울릉 지역 대입 특강 및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임종식 교육감, "올해 처음 운영되는 울릉도 대입 설명회가 도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살아있는 대입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경북교육청은 오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양일간 도서 지역의 대입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 찾아가는 울릉지역 대입설명회 및 맞춤형 대입 상담'을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산하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도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임에 따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수)은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대입제도의 이해와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며,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는 '대입의 이해 및 진학 방향 설계'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아울러 8월 16일(수) 오후와 17일(목) 오전에는 울릉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개인 맞춤형 대입 상담'을

실시해 폭넓고 정확한 대입 정보에 근거한 자기주도적 진학 설계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울릉도 대입 설명회가 도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살아있는 대입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내의 모든 지역에 맞춤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체험·탐구 중심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여름방학 수학체험캠프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는 지난 8일(화)~9일(수)에 수학과 친해지는 '2023 경상북도교육청 안동수학체험센터 여름방학 수학체험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수학체험활동에 관심이 많은 경북 북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메타버스 수학방탈출 체험', '전시체험 및 관련교구를 활용한 체험수학'을 주제로 운영하였으며 관련교구를 활용한 체험수학 프로그램은 전반기 안동수학체험센터 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한 자료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수학체험캠프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교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캠프에 참가한 유○○ 학생은 "메타버스가 VR을 이용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학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는게 너무 재미있었다. 지금까지 수학체험센터를 여러번 와봤지

만 이번 캠프가 제일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목)~11일(금)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큐브를 활용한 큐브아트', '전시체험물 활용 체험수학'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한바 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병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 4차 산업혁명 미래 기술을 만난다... 금천과학축제 개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 등에서 진행



금천구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과학으로 다시 만나는 세계, 디지털 금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과학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도시 금천의 인프라 확대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구청 광장, 금나래아트홀, 금나

래도서관 등에서 다채로운 과학체험 행사를 진행하며, 축제 안내 및 예약, 이벤트 참여 등을 위해 9월 30일까지 금천과학축제 전용 누리집을 운영한다. ▲ 최현우 매직쇼 ▲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특별강연 ▲ 과학골든벨 등 8가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금천과학축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금천구청 광장 메인무대에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축하공연과 '생동감크루'의 마이클잭슨 LED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9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되는 과학축제 행사장은 '컬처존(Culture zone 공연·강연)', '퓨처존(Future Zone 전시·체험)', '힐링존(Healing Zone 디지털·소통)', '스마트존(Smart Zone 교육·대회)'으로 나뉘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컬처존에서는 ▲ 대형 로봇 '타이탄' 공연 ▲ 청소년 버스킹 공연 ▲ 종이 비행기 날리기 콘테스트 등의 메인무대 공연과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되는 ▲ 마술사 '최현우 매직쇼' ▲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강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다양한 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퓨처존에서는 ▲ 3D스캐너 시연 ▲ 인공지능(AI) 축구 ▲ 서울시립과학관

'방탈출 버스' 등을 통해 직접 몸으로 미래 과학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참가자 정보 등록 후 키오스크에서 이름표를 발급받는 디지털 키오스크 등록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참여자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일상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소통을 주제로 하는 힐링존에서는 스마트폰 및 레고 교육, 디지털 심폐소생술 장비 전시·시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체험과 함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스마트팜 전시·체험'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존인 12층 대강당에서는 금천사이언스큐브의 코딩드론 캠프와 코딩드론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초등부, 중·고등부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명에게는 금천구청장상,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퀴즈쇼 '유 퀴즈 온 더 금천', 어벤져스 캐릭터가 행사장 곳곳에 등장해 관람객과 사진 촬영을 하는 어벤져스 코스프레 행사장 투어 등 흥미진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흐름 속에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과학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디지털 일상을 경험하고 과학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 은평구, 구민 누구나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서울 은평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가 전액을 부담하고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8월 1일에 시행돼 1년마다 갱신한다. 올해는 공제회 보장항목에서 폐지된 1개 항목인 '감염병 사망'을 제외하고 7개 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보장항목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항목은 ▲가스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가스상해 사고 후유장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인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물놀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기존 보장항목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스콜존 교통사고 등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이다. 사고 당일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1577-5939)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도시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 사거리에 태권도 품새 본뜬 조형물 11개 설치

국기원과 연계해 테헤란로 일대 명소화, 테헤란로 중앙로에 들개차기, 발차기, 막기 자세 상징물 설치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국기원 사거리 주변 테헤란로 중앙로에 태권도 품새를 본뜬 조형물 11개를 지난 7월 말 설치 완료했다. 구는 지난해 국기원 사거리부터 역삼문화공원 산책로를 대상으로 테헤란로 일대 명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거버넌스 워크숍을 운영했다. 워크숍에서는 강남 테헤란로에 국기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곳에 강남의 도시적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의 태권도 조형물을 설치해 강남의 역사·문화적 자산으로서 국기원과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2.9m~4.2m 높이의 11개의 조형물은 역동적인 태권도 품새를 형상화했다. 국기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역삼역 방향으로 설치된 5개의 조형물은 태권도 기술 '들개차기'의 연속 동작이다. 국기원 사거리와 강남역 방향으로 각 3개씩 설치된 총 6개 조형물은 태권도 단

일 동작인 '발차기'와 '막기' 자세를 본뒀다. 야간에 조형물은 내부 LED 조명으로 빛난다. 선명하게 빛나는 조형물은 역동적 자세를 부각시키면서 테헤란로 받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강남의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테헤란로에 태권도 조형물을 설치했다"며 "앞으로 강남의 여러 명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성북구 곳곳에서 말복 맞이 삼계탕 나눔...건강한 여름 나길 바라

길음2동, 월곡1동에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삼계탕 나눔 펼쳐

서울 성북구 곳곳에서 말복을 맞아 폭염으로 지친 이웃들의 기력 회복을 위해 삼계탕 나눔이 펼쳐졌다. 지난 3일 길음2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에서 유튜브 채널 통통동네스타가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직접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통통동네스타 사공유 대표는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며 기력 회복과 함께 이열치열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통통동네스타는 주민과 마을이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8일 월곡1동에서도 삼계탕 나눔이 펼쳐졌다. 월곡1동새마을부녀회가 폭

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준비한 삼계탕 120세트를 홀몸 어르신 가구에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별철 월곡1동장은 "홀몸 어르신을 살피는 새마을부녀회가 있어 더욱 살기 좋은 월곡1동이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나눔 활동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예천\_곤충생태원 예천\_강물화전시관 예천\_삼강주막

### '순정복서' 채원빈, 한국 최고의 페더급 복싱 챔피언 한아름으로 완벽 변신! "극 중 액션 대역 없이 100% 소화...큰 도전"



'순정복서'의 배우 채원빈이 한국 최고의 페더급 복싱 챔피언으로 변신한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순정복서'(극본 김민주 / 연출 최상열, 홍은미 / 제작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코너스톤, 블레이드ENT)는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제2회 수상작인 추종남 작가의 소설 '순정복서'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사라진 천재 복서 이권숙과 냉혈한 에이전트 김태영의 인생을 건 승부조작 탈출기다. 채원빈은 세계 3대 기구를 석권한 한국 최고의 페더급 복싱 챔피언 한아름으로 변신해 열연을 펼친다. 복싱계의 아이돌로 권투선수라고는

인생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아 욕심이 났다"고 밝혔다. 한아름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복싱 훈련에 최선을 다했던 채원빈은 "많이 지치고, 울기도 하는 등 힘들었는데 그 과정이 아름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채원빈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비슷한 점에 대해 "일에 대한 열정과 주변에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경기 장면을 비롯한 액션 장면이 많은데 액션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했다. 저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고 보는 분들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순정복서'의 세 가지 키워드로 '피', '땀', '눈물'을 꼽은 채원빈은 "아름이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았고, 덕분에 성장하며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캐릭터에 대한 무한 애정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채원빈은 관전 포인트로 "아름과 권숙과의 관계성 흐름을 따라와 주시면 더욱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다"면서 "드라마와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봐달라"고 분방사수를 당부했다. 안방극장에 매서운 '혹'을 날릴 채원빈의 열연은 오는 21일(월) 밤 9시 45분 첫 방송되는 '순정복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정우X배현성 주연 '기적의 형제', 오늘(10일) 더베인 가창 OST 'Say Again' 발매...따뜻한 위로 선사



원 밴드 더베인(THE VANE)이 '기적의 형제' OST 여섯 번째 주자로 나선다. 더베인이 가창에 참여한 JTBC 수목드라마 '기적의 형제' (연출 박찬홍 / 극본 김지우 / 제작 MI·SLL)의 여섯 번째 OST 'Say Again(세이 어게

인)'이 10일 오후 6시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Say Again'은 강렬한 비트와 더베인의 파워풀한 고음, 일렉트릭 사운드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얼터너티브 록 장르의 곡이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매력의 인트로가 다크하면서도

비장한 분위기로 이어지며 리스너들을 몰입도 있게 이끈다. 언제나 외롭고 두려움이 많은 삶 속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힘으로 뒤편 버텨낼 수 있다는 위안을 담은 가사가 인상적이다. 인류애 가득한 사랑의 메시지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며 극의 감동을 배가한다. 채보훈이 보컬과 기타를 맡은 일인 밴드, 더베인은 지난 2015년 디지털 싱글 '벡(Beck)'으로 데뷔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매력적인 보컬, 특유의 몽환적 무드로 팝과 얼터너티브 록을 넘나드는 곡들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거침없는 에너지와 독보적인 보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더베인은 진정성 가득한 감성선으로 극의 드라마틱한 흐름을 충실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기적의 형제'는 운동주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빛뿐인 작가 지망생 육동주(정우 분)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체 불명의 소년 강산(배현성 분)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진 실 찾기 위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다. '기적의 형제'는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방송된다. 한편 더베인이 가창한 '기적의 형제' OST Part.6 'Say Again'은 10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이 연애는 불가항력' 유라, '장신유'의 연인이자 '이홍조'와 악연으로 얽힌 '윤나연' 역할... 스틸컷 공개!

이 연애는 불가항력' 유라가 조보아, 로운과 아찔한 삼각 로맨스를 예고한다. 오는 23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수목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극본 노지설, 연출 남기훈, 제작 SLL·씨제스스튜디오) 측은 11일, 장신유(로운 분)의 연인이자 이홍조(조보아 분)와 악연으로 얽힌 '윤나연'으로 분한 유라의 캐릭터 스틸컷을 공개했다.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3백여 년 전 철저히 봉인되었던 금서를 얻게 된 말단 공무원 이홍조와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된 변호사 장신유의 불가항력적 로맨스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휘말린 두 남녀의 간절한 소원에서 시작된 달콤하고 유쾌한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열렬 세포를 깨운다. '키스식스센스' '보이스3' '터널'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남기

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드롬 급 열풍을 일으키며 청춘 사극의 새 지평을 연 '백일의 낭군님' 노지설 작가가 집필을 맡아 완성도를 책임진다. 무엇보다 차원이 다른 불가항력적 설렘을 선사할 조보아, 로운, 하준, 유라 등 '로코 대세' 청춘 배우들이 빛어낼 시너지 역시 뜨거운 기대를 모은다. 유라는 연인 장신유를 진심으로 아끼는 '장신유 바라기'이자 인테리이 디자이나 '윤나연'을 맡았다. 장신유의 프라포즈를 기다리던 윤나연은 그가 이홍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놀랐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웬지 슬퍼 보이는 장신유와 야속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윤나연. 과연 모두가 부러워하던 '워너비' 커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진다. 유라는 '이 연애는 불가항력'을 선택한 이유로 신선한 대본을 꼽았다. 그는

"스토리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꼈고, 읽을수록 재미와 설렘이 더욱 커졌다.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나연이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며 "나연이는 욕구 강한 캐릭터다.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기도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 나연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현장 분위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좋았다. 대사를 주고 받는 호흡이 정말 좋아서 즐겁게 촬영했다"라고 덧붙이며 다가올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JTBC 새 수목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오는 8월 23일(수)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가스라이팅 소재 웹툰 '푸른 가스등', 드라마로 제작된다.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 '푸른 가스등'(글: 김보명 / 그림: 황진영)이 드라마로 제작된다. 웹툰제작사 재담미디어는 제작사 비온드스토리과 최근 드라마 제작에 관한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웹툰 매일플러스에서 서비스 중인 '푸른 가스등'은 재담미디어에서 직접 원안 및 기획한 작품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서로를 파괴하며 치유를 갈망하는 세 남녀의 성장 로맨스 스텔러물이다. 인플루언서이자 사진작가인 유이나와 그녀를 통제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기획사 대표 윤경원. 그리고, 이나가 경원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배우 지망생 이수인. 이야기는 세 주인공의 아슬아슬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특히 이 작품은 요즘 화두가 되는 '가스라이팅' 소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조종하는 인간의 비틀린 욕망을 조명한다.

동시에 '사랑'이라는 개념 또한 일종의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로서, 그릇된 사랑이 타인을 상처 입힐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드라마 제작을 맡은 비온드스토리의 김남수, 이상직 대표는 작품이 지난 소재와 메시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치명적인 매력만큼이나 일그러지고 위태로운 인물들, 폭력과 애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서로의 심리를 탐색하며 배반하는 스텔러식 이야기가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이자 매력이라고 말한 두 대표는, 올 하반기 디즈니플러스 편성 예정 드라마 '비질란테'의 총괄 프로듀싱과 넷플릭스 '종의의집', '창궐', '성난 변호사', '국제시장' 등의 총괄 프로듀서를 담당했다. 이번 '푸른 가스등' 웹툰이 두 대표의 손을 거쳐 어떻게 드라마로 제작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웹툰 제작사 재담미디어(대표: 황남용)는 '동네번호사 조들호', '85년생', '크라임퍼즐', '청춘불라섬', '악한영웅'

등 여러 웹툰들에 대해 영상화까지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종합엔터테인먼트 그룹 'CE그룹'과 함께 일본 현지 웹툰제작스튜디오 'S2미디어'를 공동 설립, 글로벌 콘텐츠 업계를 이끌어나갈 경쟁력을 선보이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만식/기자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분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www.designdahae.com

# 이제 '여름'하면 'i리그 여름축구축제'가 떠오른다!



i리그 여름축제는 이제 아이들에게 축구와 물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구미시 낙동강체육공원에서 2023 i리그 여름축제가 열렸다. 매년 성대하게 열렸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경주에서 재개되면서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장소를 구미로 옮겨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됐다.

i리그 여름축제는 매년 여름방학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 행사다. i리그 참가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축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지난 2013년 출범한 i리그는 미취학 어린이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호인 축구대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대한축구협회와 구미시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국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250여 팀, 250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U-8, U-10, U-12 세 연령

대로 나뉘어 각각 4인제, 6인제, 8인제로 치러졌다. 팀 당 5경기에서 10경기씩 참가할 수 있다. 우승팀을 가리기 보다는 축구를 즐기고 교류하는데 의미를 둔 만큼 토너먼트 경기는 시행하지 않는다. 모든 선수들에게 성적과 관계없이 참가 메달과 페넌트를 지급했다. U-12 경기 중 일부 경기는 아프리카TV와 KFA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다양한 지역의 팀들과 맞대결하는 경험도 매력적이지만 아이들을 즐겁게 만드는 건 다채로운 이벤트다. 먼저 4일 저녁에는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토크 콘서트에는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참석해 학부모 및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자신을 아는지 궁금했던 김병지 대표는 "저 알아요?"라고 물어봤고, 아이들은 "드리블하는 거 동영상으로 봤어요"라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골키퍼였던 김 대표가 선수 시절 골문을 비우고 나와 상대 진영까지 드리블

한 장면이 아이들엔 인상 깊게 남았던 모양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드리블하는 게 재밌었다"며 "요즘 골키퍼들은 발도 잘 써야 하는데 내가 시대를 앞서갔다"며 웃었다.

김 대표는 '아이가 학업과 운동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질문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업과 운동의 비중을 8대 2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중학생이 되면 5대 5 정도로 하고, 고등학생이 돼 전문 선수로 진로를 결정한다면 그때부터는 운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다.

골키퍼를 꿈꾸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골키퍼를 잘할 수 있냐'고 묻자 그는 "상대 선수가 슈팅할 때 각도를 잘 잡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내 주변으로 오는 공만 확실히 막는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건넸다.

토크콘서트 가 열리기 전에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김명준 씨가 아이들과 만났다. 유명 예능프로그램 '유크즈'에도 출연했던 김 씨는 종이비행기를 멀리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하며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낙동강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는 수중축구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 어린 선수들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설치됐다.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었다. 아이들은 경기 때 입어야 할 유니폼을 입은 채로 곧장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현장에서 흘러 나오는 즐거운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슬라이드를 타느라 여기저기선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 외에도 축구스케존과 문화체험존에선 경기력 인증 테스트, 슈팅 속도 측정, 축구 다트, 미로 드리블, 비치볼 만들기 등 갖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5일 현장에서 만난 구미 B.S.J.축구센터의 안기준 군은 "어제 토크콘서트에 가서는 김병지 아저씨를 만나서 엄청 놀랐지만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 됐다. 물놀이존에서는 수중축구가 재밌었고, 골도 많이 넣었다"며 "내년에도 꼭 오고 싶다"고 강조했다. 청주 프로비더축구클럽의 안우성 군은 "슈팅 속도 측정하는 것과 축구 다트가 신기했다. 물놀이도 재밌다. 친구들과 함께 해 더 즐겁다"고 했다.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흐뭇해했다. 대전유소년강남FC 박태겸 감독은 "i리그 여름축제의 가장 큰 장점은 경기를 하면서 다른 팀과 어울려 놀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친구를 사귄 수 있어서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나이에 즐겁게 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더 좋다"고 말했다.

용인시여학생FC 문서윤 양의 어머니 홍지연 씨는 이번이 세 번째 참가다. 아예 이번 행사에 시택 식구가 총동원(?)돼 2박 3일간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홍 씨는 "i리그 여름축제는 물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어 축구와 물놀이를 같이 하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이벤트도 다양하다. 작년에는 국가대표 출신 조원희 씨가 오셔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했고, 올해는 클럽별 춤 대회를 했는데 우리 팀 선수가 1등을 했다"며 즐거워했다.

홍 씨는 "세월호 사건 이후 단체활동이 많이 줄었는데 i리그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된다. 속도도 여자 기사를 배정 받았는데 상태가 정말 좋았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올 생각"이라며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효진/기자

# 경남도,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경남관광 홍보

## 가을 여행객 겨냥 경남 아웃도어 명소, 5대 테마 상품 등 집중 홍보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수도권 관광 유치에 힘쓰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ITS)는 인·아웃·인트라바운드 관광 전문 박람회로 관광 정보와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경남도는 박람회 기간 경남관광 홍보관을 2개 시군(통영시, 하동군)과 함께 운영한다. 다가오는 가을 여행객을 겨냥하여 ▲이순신장군의 얼이 담긴 통영 한산도 제승당 ▲한국 최고의 에어쇼인 사천 에어쇼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고성 연화산도립공원 ▲하동 삼성공 ▲산청 황매산 미리내파크 ▲거창 서출동유물길 ▲합천 신소양 핑크물리 등 경남의 대표 아웃도어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경남 5대 테마버스 투어상품(▲지리산 ▲력서리 ▲치유힐링 ▲익스트림 ▲해양레저), 이순신 테마상품과 함께 오는 9월에 개최하는 '2023 산청세계 전통의약향노화엑스포' 등 경남의 축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관광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남관광 사회관계자 비스(SNS)를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면 관광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북돋우며, 국내외 여행사와는 B2B 바이어 상담회를 진행하여 경남의 매력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사계절 다양한 경남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류할 계획이다.

경남관광재단 정연두 사무국장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수도권 관광객 대상 경남의 아웃도어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남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국내외 관광박람회를 통해 경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현/기자

# 강원콘텐츠코리아랩, 도내 최초 숏폼 축제 '2023 숏폼 FESTA' 개최

강원콘텐츠코리아랩이 크리에이터 발굴 및 숏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 숏폼 FESTA'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숏폼'은 '짧다의 '숏(short)'과 '형식'을 뜻하는 '폼(form)'의 합성어로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며, 영상 콘텐츠 소비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 공유하는 놀이 문화로 성장하여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스냅챗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춘천시 서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일대에서 열리는 '2023 숏폼 FESTA'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 숏폼 콘테스트 선정 40팀의 숏폼 창작자가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두고 본선 경연을 펼친다.

또한 유명 크리에이터 일오파, 닛물캐쉬 초청 교류회, 숏폼 상영회를 비롯해 모션캡처, 크로마키, 3D 공간스캔, 드론 등 특수 촬영 장비 체험과 컬러증명사진, 페이스페인팅, 라디오 생방송 체험, 버스킹시티 춘천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숏폼 창작자 및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열리는 숏폼 축제로서 유명 크리에이터 초청을 비롯해 거액의 상금이 걸린 콘테스트가 진행되기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가철을 맞아 이번 행사에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원영/기자



# 하남시민 대화합 음악축제 '뮤직 인(人) 더 하남'개최

(재)하남문화재단은 시민 중심형 축제를 목표로 2023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인(人) 더 하남'을 개최한다. '하남인의, 하남인을 위한, 하남인에 의한'을 축제 슬로건으로 하남시민과 하남예술인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로 진행된다.

'뮤직 인(人) 더 하남'은 하남시 연합오케스트라, 하남시민들로 구성된 하남시 연합합창단과 하남시립합창단이 함께한다. 또한, 하남 예술인과 하남시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함께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축제의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축하 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이견명, 신영숙, 민우혁,

고훈정과 미스터롯2의 정동원이 고품격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하남시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KB국민은행(하남시점지점), 스타필드 하남, SK E&S 나래에너지서비스(주), NH농협은행(하남시지부)이 함께한다.

재단 관계자는 "문화도시 하남으로 도약하는데 이번 축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하남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축제는 오는 9월 9일 미사경정공원에서 늦은 7시부터 진행된다.

김범상/기자



# 광명동굴에서 만나요

광명도시공사 Gwangmyeong Urban Corporation  
광명동굴 GWANGMYEONG CAVE

# 영양 들어다보시기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머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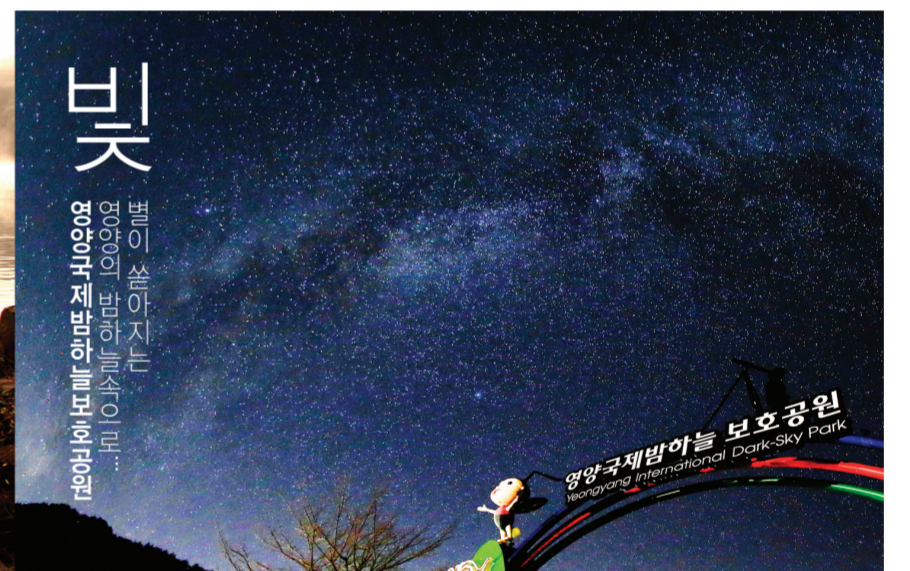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살과 산이 너저  
하그며 오해하고...  
의미표지엔 영양가진



**물**  
영양이 더우며  
스피그아에겐 건과...  
영양이 채워진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반짝일수록...  
영양이 제 빛을 드러내자면



**얼**  
시몬의대가  
스피그아에겐 건과...  
영양서지



**맛**  
사백년들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항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지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신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